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Extended University Projects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대학혁신지원사업

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CONTENTS

-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소개 4
- 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프로그램 6
- 한눈에 보는 전공융합혁신사업(EUP) 8
-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활동 10

계명ESG 활동 지원	경영대학, 슬기로운 ESG생활 O.K!	10
	교육과정 개선 학생참여 프로그램	12
	계명 RCY봉사단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및 해양플로깅	14
	계명투게더(계명ESG 환경캠페인 함께해요!)	16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18
	다문화 건강지킴이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 대상	20
	북구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세계시민	22
	[의료나눔]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벗' 신당 복지관 봉사	24
	[의료나눔]손끝으로 전해진 생명(손·전·생)	26
	[의료나눔]열린진료소	28
	계명건강드림서포터즈	30
	KAC 세르버스 레단(레단스쿨)	32
	청년 경찰 희망이음 대학생 서포터즈	34
	청년참여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프로그램	3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38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회복 안내서 및 심리지원 메뉴얼 개발	4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경영생활	42
	식품가공학전공의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 발효식품 함유 이색 건강 디저트	44

초·중·고 교육 지원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46
일상 속의 화학공학 기초 실험 48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인력 양성 교육 50
진로멘토단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52
지역사회 수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54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56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58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60

인문예술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대구·경북 지역어 창작 독려 사업(지역 사투리 UCC 경연대회) 62
대구시교육청 연계 특수학생 미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64
모두 함께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66
계명 엘 시스테마 68
계명대학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함께해요! 공원축제!」 70
문화소외계층 도자예술체험 프로그램 72

지역환경 개선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74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존 만들기 76
정원으로 생기 넘치는 우리 동네 78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80

사회를 환히 밝히는 생각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에서 시작되다

• 정책연구센터

대구·경북 사회문제 해결에 불을 밝히다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정책연구센터는 대구·경북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연구해 온 지역문제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역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인의 의견과 인재들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플랫폼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

청석으로 된 바위산을 깎아 학교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설립된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는 오직 사랑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힘과 지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계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오고 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감동적인 사회가 계명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된 삶의 기쁨이 마음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아름다운 삶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 지역협력센터

지역발전, 지역상생에 희망을 밝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인 테마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트렌드와 기술혁신 및 교육 인재를 제공하고 기업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바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윤택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역협력센터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프로그램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전문성과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하고 이를 지역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교류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젝트

목적 및 필요성

01 대학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혁신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교 발전 목표인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지식플랫폼' 목표달성

02 대학의 혁신을 지역의 혁신으로 유도하여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03 EUP의 국외 확산을 통해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대학' 이념 실현

04 지역 친화적 혁신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05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확산

연도별 EUP프로그램 추진계획

총 사업기간 2020. 9. ~ 2026. 2.(5년 6개월)

구분	기간	목표
1기 (도입기)	2020. 9. ~ 2022. 2.	EUP프로그램 시행 및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2기 (정착기)	2022. 3. ~ 2024. 2.	협력체계 고도화 및 국외 지원사업 개발
3기 (확산기)	2024. 3. ~ 2026. 2.	지역사회 봉사 확대 및 국외 지원사업 고도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 중 단과대학 행정팀을 통하여 신청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으로 신청

2023학년도 EUP프로그램 운영

활동기간 2023. 4. ~ 2024. 1.(10개월) **참가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구성된 42팀 선발

연변	카테고리	주요 추진내용	프로그램 수
1	계명ESG 활동 지원	E(환경), S(사회), G(협치) 관련 교내외 활동 지원 등	4팀
2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및 장애우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건강 멘토링, 외국어 교육, 심리상담 및 전공 관련 적정기술 개발 지원 등	16팀
3	초·중·고 교육 지원	초·중·고 대상 독서토론, 글쓰기 지도, 교육 멘토링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9팀
4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인문학, 예체능 관련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	6팀
5	지역환경 개선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등	6팀
6	자원봉사단	재학생으로 구성된 상시 봉사단 운영	1팀

운영방법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 및 선발(4월 중)

지도교수는 수시로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지도의견 기재

지도교수 및 참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과 중간간담회 등을 실시 후 EUP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지도교수에게는 결과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봉사 업적 인정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COMPass-K 배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봉사/인성 영역 장기프로그램 (20시간 또는2개월 이상)으로 역량 점수 10점 부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 및 소감 공유 등을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프로그램별 활동 종료 후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에서 추후정산 및 사업비 집행

한눈에 보는 2023학년도

대분류	프로그램명	책임자	소속	대표학생
계명ESG 활동 지원	경영대학, 슬기로운 ESG생활 O.K!	김길환	관광경영학전공	박주영
	교육과정 개선 학생참여 프로그램(G:협치분야)	정성원	의학과	김은빈
	계명RCY봉사단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및 해양플로깅	최해운	국제통상학전공	장현성
	계명투게더(계명ESG환경 캠페인 함께해요!)	김상우	중국어 중국학과	이동건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박성태	한국어교육전공	문지윤
	다문화 건강 지킴이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대상	손순영	간호학과	신아림
	북구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세계시민	김수민	International Relations	전서윤
	[의료나눔]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벗' 신당 복지관 봉사	김동은	의학과	석수현
	[의료나눔]손끝으로 전해진 생명(손·전·생)	이재호	의학과	박동빈
	[의료나눔]열린진료소	황일선	의학과	손정인
	계명건강드림서포터즈	박천만	공중보건학전공	천지연
	KAC세르버스 레단<레단스쿨>	서정수	International Relations	공예담
	청년 경찰 희망이음 대학생 서포터즈	김혜경	경찰행정학과	황서현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청년추진단	사용진	행정학전공	김영진
	청년참여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프로그램	김윤민	경제금융학전공	배재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정대겸	심리학과	김소연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회복 안내서 및 심리지원 메뉴얼 개발	최윤경	심리학과	김주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경영생활	김길환	경영정보학전공	유선영
	식품가공학전공의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발효식품함유 이색 건강 디저트	이승욱	식품가공학전공	박채원
	달서구보건소 영양개선 프로그램	최정화	식품영양학전공	김효미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대분류	프로그램명	책임자	소속	대표학생
초·중·고 교육 지원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정상희	일본어 일본어과	전소희
	KAC와 함께 영어야 놀자	서정수	International Relations	조은채
	일상 속의 화학공학 기초 실험	이열림	화학공학전공	박용희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인력 양성 교육	박주혁	신소재공학전공	황규동
	진로멘토단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서원상	기계공학전공	박찬욱
	지역사회 수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고은경	수학전공	최상원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최원석	체육학전공	박나원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천우광	사회체육학전공	조기현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김종수	태권도학과	이준형
인문예술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대구·경북 지역어 창작 독려 사업(지역 사투리UCC경연대회)	장요한	국어국문학전공	김수린
	대구시교육청 연계 특수학생 미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조배문	텍스타일 디자인전공	허도아
	모두 함께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박성태	한국어교육전공	김연우
	계명 엘 시스테마	박미선	관현악전공	강예은
	계명대학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함께해요! 공원축제!	김상우	경영학전공	양희종
	문화소외계층 도자예술체험 프로그램	최유담	공예디자인전공	신채은
지역환경 개선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안성진	건축공학전공	차인혁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존 만들기	박진욱	생태조경학전공	김신혜
	정원으로 생기 넘치는 우리 동네	정해준	생태조경학전공	김태민
	진천 복지관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사랑그리기	박승현	경제금융학전공	박아현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석재혁	산업디자인전공	박권형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박종만	시설안전팀	-

계명ESG 활동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 지도교수 김길환

경영대학, 슬기로운 ESG생활 O.K!

활동 내용

경영문고 경영문고 활동은 크게 2단계로 나뉘었는데 1단계는 홍보 및 서적 모집입니다. 경영대학 주관으로 기부자들에게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서적을 최대한 많이 수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총150여 권의 전공 서적이 기부되었으며, 경영대학의 모든 전공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2단계는 나눔 행사 진행입니다.
수집된 전공 서적들을 계명대학교 의양관 로비에서 진행하여 경영대학 학생들이 필요한 전공 서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남은 서적은 10권 아래였으며, 남은 서적 또한 중복으로 수집된 책이었습니다.

ESG 순찰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15분 이후 시간마다 경영대학 의양관 건물을 순찰하며 빈 강의실의 형광등 소등, 컴퓨터 스크린 등의전원을 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쓰레기 및 분실물을 수거 하였습니다.

헌혈/홍보 경영대학 의양관 로비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경영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과 각 학과 공지방을 통해 헌혈 일정 및 중요성을 공지하였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플로깅 캠페인은 경영대학 학생회와 경영대학 ESG 인원 주관 아래 총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플로깅 경로 설계로, 계명대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남문 방향으로 1팀, 동문 방향으로 1팀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습니다. 2단계는 플로깅 행사 개최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2팀으로 나누어 플로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플로깅 경로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들을 종류에 따라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농촌봉사활동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주 농협과 협력을 맺어 여러 팀으로 나뉜 뒤 비트 수확 및 다듬기, 비닐하우스 정리 등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식사 시간 전 마을 이장, 성주 농협 지점장과의 만남을 가져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관한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토론 ESG인지도 교수님이신 김길환 교수님, 행정실 선생님들과 함께 ESG 서적을 활용해 근본적인 개념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왜 ESG 경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성과

경영문고	사용하지 않게 된 전공 서적들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G 순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전력 소비 감소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헌혈/홍보	헌혈의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 경영대학 학생들 기준 1학기 대비 2학기에 참여 학생이 30%가량 증가하였으며, 캠퍼스 내 행사 및 협력 기관에서의 참여도가 크게 향상했습니다.
플로깅 활동	인근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하였고 참여자 및 동네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청결함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여 농촌 지역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토론	ESG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책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닌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활동 소감문

EUP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영대학 학생회장의 직책까지 맡아서 했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ESG의 중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및 안전지킴이 활동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영향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소중한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적은 노력이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농촌에서의 봉사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은 저희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부터 강창역과 동문 인근 주변까지 쓰레기를 주우며 외국인 학우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색다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대학은 외국인 학우분들이 많은 단과대학이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학습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미래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참여하는데 있어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 동기를 유발 하였습니다.

ESG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곧 성공적인 비즈니스임을 알게 되었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알게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계명ESG 활동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의학과 / 의예과 **지도교수** 정성원

교육과정 개선 학생참여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교육과정위원회와 중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교육부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성과 평가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고, 각 항목별로 학생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족한 점을 중장기발전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교육과정, 교육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워크숍에서는 지난 학기에 배운 과목들에 대해 피드백하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토의했습니다. 토의한 내용은 교육부학장님과 학생지원센터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내년 교과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내용과 해보고 싶은 활동을 분류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성과

'시기성과 평가기준'에 대해 연구활동은 학생의 수준에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학학습 활동에서는 실기 시험을 영어로 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봉사활동에 있어 멘토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학기당 10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받는 것은 학생회장과 동일한데, 이는 과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학생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으로 과목별 성적 공개, 의료인문 P/F 전환을 건의드렸는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필기시험만이 아닌 다양한 성적 평가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과목의 부족한 내용이나 시험 날짜 선정 등에 대해 건의드렸습니다.
특히 본과 1학년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두 시험을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변화를 주겠다고 학생지원센터장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활동 소감문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법론을 접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고, 교육과정 설정에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께서 힘쓰고 계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육과정이란, 당연히 교수님들께서 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학생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제가 왜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상한 점은 없는지 다른 관점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해진 임원분들께서만 토의하시다 보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도 부담 없이 교수님들께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수님들께서 편한 분위기에서 저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 주셨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능동적인 자세로 학생-교수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건설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추후 의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같은 기회가 학생회 및 학년 대표들에게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개선은 앞으로 교육받을 후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며,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차기 학생회와 학년 대표들이 찾아내어 우리의 손으로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명ESG 활동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RCY(전 단과대학) 지도교수 최해운

계명RCY 봉사단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및 해양플로깅

활동 내용

EM 흙공 친환경 봉사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흙공을 하천에 던짐으로써 하천 및 토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를 진행하였다. EM 흙공 봉사를 진행하면서 단원들과 함께 강정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플로깅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성로 플로깅 연합봉사 경일대학교, 수성대학교와 함께 연합하여 각 학교에 RCY단원들이 모여 동성로 일대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투표를 받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쏙쏙캠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교육기부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단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홍성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3일간 아이들에게 환경과 관련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농촌 봉사 경상북도 청도에 위치한 농가에 도착해서 단원들과 함께 감따기 봉사를 진행하였다. 봉사를 진행하는 인원이 많아서 농가를 3곳으로 나누어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을 따는 봉사자와, 박스에 담는 봉사자, 떨어진 감을 정리하는 봉사자로 나누어 감따기 봉사를 진행하였다.

간식 이벤트 1년 동안 고생한 단원들에게 선물을 하고자 RCY 임원진들과 함께 단원들에게 간식을 배부해 주는 봉사를 진행하였다. 단원들이 RCY 인스타 계정에 댓글로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면 간식 이벤트 참여를 도와주고, 정해진 시간에 동아리방에 오면 임원진들이 안내해 주고 간식을 배부해 주는 봉사를 진행하였다.

비치코밍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월포해수욕장에 가서 해변가 일대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4개의 조로 나누어 쓰레기를 줍는 사람과 담는 사람으로 나누어 봉사를 진행하였고, 쓰레기를 모두 담은 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분리수거 하였다.

주요 성과

플로깅을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하면서 계명대학교 RCY라는 단체를 알릴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단원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도시에 살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농촌의 생활들을 봉사를 통해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농가 측에서는 인력난으로 감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EM 흙공 봉사, 동성로 플로깅, 쏙쏙캠프, 농촌 봉사활동, 비치코밍 등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추억들을 쌓으며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M 흙공 봉사, 농촌봉사, 비치코밍 등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봉사들이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농촌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따기 봉사를 통해 짧게 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고, EM 흙공 봉사는 처음에는 단지 흙공을 던짐으로써 하천이 정화 되는 걸 배우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흙공들이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여러 곳에 던지는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도 진행하며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치코밍 봉사는 봉사도 하고 바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물건들을 바다에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비치코밍 사전답사를 갔을 때는 쓰레기가 많지 않아 봉사가 일찍 끝날 수 도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막상 봉사를 시작하니 쓰레기가 더 많아져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봉사 하면서 지금 청소를 하면 과연 얼마나 유지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진행했던 쏙쏙캠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 봉사로 작년 겨울부터 진행하면서 프로그 램을 준비하는 단원들과,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육 봉사입니다.

이번 쏙쏙캠프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학년에게 어렵지 않을 만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환경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저학년 친구들이 함께 놀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일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조그마한 편지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고,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명ESG 활동 지원 | **참여학과 및 부서** 학생지원팀(전 단과대학) **지도교수** 김상우

계명투게더 계명ESG 환경캠페인 함께해요!

활동 내용

캠퍼스 플로깅 캠퍼스 내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내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날씨가 더운 점을 생각하여 참여 인원들에게 물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탈수가 오지 않게 방지하였다.

농촌 일손 돕기 성주 수륜면에 호두농장에 가서 농가를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 일손을 도왔다. 호두를 따고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호두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이 되었다.

제로 플라스틱 학교 축제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여 참여 인원들과 축제 내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 구역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학우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현재 자신이 환경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또한 진행하였다.

교내 청결지킴이 봉사단 1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학교 또한 청결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단을 구성하여 교내 청결 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구역에 조를 구성하여 원활하게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성과

캠퍼스 플로깅	사업 참여 인원들과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서로 도와가며 플로깅을 진행하다 보니 활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청결해지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이 되었던 활동이었다.
농촌 일손 돕기	장마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농가 주민들을 위해 참여 인원들이 직접 일손이 되어 돕기로 하였다. 농가주민들도 봉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과 호두를 선물로 주셨고 농가 봉사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 정신이 향상된 것 같았다.
제로 플라스틱	축제 기간동안 '제로 플라스틱'을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 캠페인을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교내 청결지킴이 봉사단	마지막 활동으로 청결한 학교를 위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비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상자 없이 무사히 활동을 끝낼 수 있어서 만족한 활동이었다.

활동 소감문

환경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업단을 같이 진행했던 학생들끼리 봉사 정신을 향상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평소 본인들은 환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EUP사업을 통해 평소에 진행하고 싶었던 환경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만족하였다.

초반에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계획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활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첫 활동인 '캠퍼스 플로깅' 당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인원들을 관리하다 보니 구역 배치나 물품 준비가 미비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 인원들과 회의 하는 시간을 가져 다음 활동부터는 사전 준비와 인원파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으로는 성주 수륜면에서 진행했던 '호두 따기 봉사'였다. 당시 참여 인원들은 대부분 처음해보는 활동이었기에 모르는 점과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농가 주민분들이 친절하게 분류 작업과 수확 작업 과정을 알려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참여 인원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 농가 주민분들을 위해 호두 작업에 집중하였고, 농가 주민분들도 이런 우리들을 위해 간식과 호두 선물을 주셨다.

봉사는 누군가에게 보답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 주민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 더욱 봉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봉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들로 사업 진행 인원들은 한 단계 성장한 것을 느꼈고, 평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은 봉사 정신을 향상할 수 있었고,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까지 활동을 넓혀 초반 사업계획서 작성시 추구했던 목표에 도달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번 EUP사업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은 기획 봉사로 신청하여 진행해 보고 싶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박성태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활동 내용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 본교 어학당 한국어 강사와 함께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 및 문화 이해 교실을 운영
- 한국 귀화 시험 합격을 목표로 중·고급 수준별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 한국어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운영하고 또한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학부생들이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
- 한국어 학당 전문 강사와 한국어교육전공 전공생(보조교사)이 함께 수업을 구상하여 진행하면서 각 반별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함께하는 전래 동화구연 교실

-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함께하는 전래 동화구연 교실'을 초급/중급으로 나누어 매주 2회 진행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 운영
- 사전 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도서를 중심으로 아동 학습자에게 어휘, 문법, 문화 등 한국어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제공
- 2023년 6월과 7월 '오늘은 전통의 날' 과 '생각 쑥쑥 퀴즈 대회'를 개최하면서 아이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진행함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라이프러리 라디오 방송

- 방송 운영을 위해 PD, 방송작가, 아나운서 등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과 들과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 본격적인 방송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침
- 개별 방송 일자에 따라 적절한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는 게스트 및 대본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여 방송 송출에 대해 열정을 가짐

주요성과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 참여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여 사회에 잘 녹아들어 생활할 수 있게 됨
- 한국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함
- 해당 수업에서 학습한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문화를 각 다문화 가정에 학습자 스스로 적용시키면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로 교육의 범위가 점차 확대
- 해당 수업을 매개로 삼아 사회에서 지내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실행함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함께하는 전래동화 구연 교실

- 다문화 및 중도입국 아동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래동화와 사자성어를 공부하면서 좀 더 심도 깊은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됨
- 5월 우리는 다름이 아름다운 지구촌 어린이 행사에서 성서복지관의 감사패를 받음
- '독서문화진흥 유공 표창'을 수상하여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음
- 단순한 교육적 기능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속해있는 아이들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학부생 또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환경을 경험하면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소양을 키움
- 교재 '이주배경 및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해맑은 한국어'를 제작하면서 현재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채워나감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라이프러리 라디오 방송

- 단순 교실이 아닌 교실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형태를 직접 경험함으로 한국어 교사로서 소양을 키움
- 다양한 미디어 기기 및 방송 기계를 다루는 법을 익히면서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활동의 범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음
-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등 매달 지역사회 주민을 다양하게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공생 역시 더 넓은 시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됨
- 2023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사례'로 선정됨

팀 전체 활동

- 평소에는 각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다문화 관련 행사 개최 시 각 팀원과 팀장이 모여 기획, 준비, 실행, 피드백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엶으로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
- 성인, 아동, 유학생 등 다문화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직접 보고 소통 및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방향성에 향성에 대해 모색함

활동 소감문

먼저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실은 일반적인 학습자와는 다른,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한 학습자들을 만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학교 안에서는 쉬이 만나기 힘든 결혼이주여성을 만나보며 그들의 학습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새로운 교실 환경을 경험하며 학습자 및 교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혼이주여성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란, 단순히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주문, 귀화시험 대비와 같이 그들의 실생활에 밀접하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올해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실은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 전공생은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는 '참관' 형태가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전공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볼 기회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전문 교사의 수업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나 수업 스킬 등 예비 교사로서 배워갈 점이 많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전공생이 전문교사를 만나볼 기회는 많지 않기에, 이 기회에 좀 더 많이 전공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관해 전문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내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공생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실이 다문화 사회로의 한걸음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환경이 좀 더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전래동화 구연 교실은 수업 준비 및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학습자들의 수준이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잘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의 경우 성인 학습자와는 다르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제와 어휘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동 학습자에게 여러 교수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에 사용하는 학습지뿐만 아니라 교재도 따로 제작해 보면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한국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학습자가 해당 수업을 계기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라이프러리 라디오 팀에서는 다름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다. 매달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 살고 있는 게스트를 섭외해 각 나라의 동화를 통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방송으로 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주민의 고충을 알 수도 있었고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학년의 학우들이 모여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보이는 라디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처음 다뤄보는 장비들,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했고 매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기도 하며 함께 성장했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능숙하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작한 방송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닿아 다문화 인식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여해 주신 이주민 게스트 분들이 함께 즐겨주시고 열심히 참여 해주신 덕분에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었다. 제작한 방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인식 개선과 문화 교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간호학과 지도교수 손순영

다문화 건강지킴이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 대상

활동 내용

가정방문 가정방문 활동을 신청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조를 구성하여 한 분기에 총 6번을 실시하였다. 봉사시간 기록을 위해 구글폼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 활동마다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겼다. 가정방문 활동은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따라(보충과목 수업, 악기, 만들기, 보드게임 등) 차별화하여 제공하였다.

헬스페어 달서 다문화 엄마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식 날짜에 맞추어 어머니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초청하였다. 크게 건강검진, 체험, 교육, 포토존 네 개의 부스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건강검진부스에서는 키/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 소변 7가지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체험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비누 만들기, 아로마 오일 만들기를 하였다. 교육부스에서는 구강 교육과 생활습관 교육을 진행하였고, 성서 보건지소의 담당 직원들이 방문하여 금연교육을 진행하였다. 포토존부스에서는 준비한 포토월 앞에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이용하여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분기 다문화 가정방문 신청을 받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아리 간담회 활동 참여가 저조한 구성원들이 있어서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활동 피드백을 하기 위하여 전체 모임을 가졌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모하였다.

주요 성과

가정방문 구성원들이 가정방문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각 가정과의 충분한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참여한 가정들이 만족감을 표하였다. 초반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의 반응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구성원들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가정방문 활동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종종 받을 때면 더욱 뿌듯함을 느꼈다.

헬스페어 이전까지 진행했던 헬스페어와 다르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결과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여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가정방문 소식지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새롭게 가정방문 활동에 신청한 가정이 증가하였다.

동아리 간담회 해가 바뀌며 달라진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없어진 활동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전에 비해 활동 수가 적다는 의견이 나와서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보다 원활한 소통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아리 간부(2학년 부장, 총무)를 추가적으로 선출하였다.

활동 소감문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신청한 동아리니까, 혹은 추후에 취업할 때 자소서에 쓸 내용을 얻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시작한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매 활동이 거듭될수록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자신보다 대상자, 곧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한민족 국가에서 점차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며 늘어난 다문화 가정을 위해 그들이 우리나라의 언어, 음식, 문화, 교육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한 활동이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해주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친구들과의 교류에 거부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어색해서 원하는 바도 잘 말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던 아이들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또 가정방문 활동을 기다린다는, 선생님들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던 우리에게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앞서 조금 언급했듯이 이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던 우리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점차 뿌듯함,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순수한 아이들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하였다.

가끔은 아이들이 지나치게 버릇없이 행동할 때,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울어버릴 때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다. 이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여 교육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구성원들이 함께 고뇌하기도 하였다. 부모님께서 제지해 주실 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어려운 부분이 컸던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우리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간호학 전공이신 동아리 담당 교수님께 자문을 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끝으로 우리의 활동이 앞으로 전공융합혁신사업이 더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대학과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부서**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지도교수** 김수민

북구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세계시민

활동 내용

영어 비대면 멘토링 각 14명씩, 총 28명의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영어 수업을 진행. 사전 테스트를 통해 멘티에게 적합한 레벨의 수업을 진행하고, 매 수업 일지를 통해 이를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사후 테스트를 통해 멘티의 성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사회성 발달 대면 멘토링 매 월 다른 주제로 계기 교육을 통해 멘티들이 단순히 재미만 느끼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바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 비대면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1대1 매칭으로 진행해 아이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줄 수 있었음

캠페인 주제 선정부터 최종 피드백 회의까지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주요 성과

상반기

- 총 14명의 아동과 1대1 비대면영어 멘토링
- 상반기 총 3번의 대면 체험 수업 진행
- 상반기 멸종위기동물보호 캠페인 진행
- 방학 중 단원역량강화캠프 진행

하반기

- 총 4회 대면 사회성 발달 수업 진행(각 4시간 수업)
-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 진행

기타

- 캠퍼스 투어 진행
- 방학 중 북구가족센터와 1박 2일 '소화재' 캠프 진행
- 매 학기 멘토링 사전 교육 진행
- 대구국제개발센터와 세계시민 교육 진행

활동 소감문

처음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지, 적절한 수업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1대1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의 경우 매 수업 일지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멘토에 따라 차이나는 수업 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코로나가 완화되며 대면으로 캠퍼스 투어, 대면 사회성 발달 수업 등을 진행하며 멘토 학생들도 멘티 아이들과의 소통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얻어 좋았습니다.

방학 중 진행된 북구가족센터와 함께한 1박2일 소화재 캠프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함께하고, 운동회 등의 활동 기획을 팀원들이 해, 전문 사회복지사분들과의 협업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원들이 멘토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의견을 들어 현직 교사분의 교수법 강의, 한동대 교수님의 세계시민 강의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역량강화캠프를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열어 방학 중 팀원들의 역량이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방학 중 진행된 전체 피드백 회의에서 대면 수업의 반응이 더 좋아 비대면 수업을 폐지하고 전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북구가족센터 활동은 기존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격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의 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를 중점으로 알려주는 수업보다는 체험 위주에 수업으로 진행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아 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체험만이 아닌 매월 계기 교육으로 5월 바다의 날, 6월 철도의 날, 7월 삼복, 10월 독도의 날, 11월 점자의 날, 12월 크리스마스와 같이 매월 중요한 날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관련 키트를 통해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일에 대해 알려주는 PPT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 혹은 퀴즈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아이들을 1:1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끝내야 했지만, 모두 다 다른 진도로 먼저 끝난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꾸미기를 시킨다거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진도를 같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며 더 많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 시간에는 흥미를 느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며 다음 수업시간에는 어떤 재밌는 체험을 해줄지 고민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직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완벽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점점 배워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쌓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소통의 능력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지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아이들에 따라 수업에 맞게 진도를 나가면서 아이들도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고, 수업에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더 재밌고, 알찬 수업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의과대학 | 지도교수 김동은

계명대 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벗' 신당 복지관 봉사

활동 내용

1학기의 경우 매주 월요일마다, 여름방학은 매주 화요일마다, 2학기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신당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 활동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활동 보고서는 금액을 지출한 날만 작성함) 봉사를 한 번 나가면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아이들 야간 보호 및 학습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 봉사마다 2명에서 4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1시간씩 돌아가면서 야간 보호 및 학습 보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보조의 경우 월마다 내용이 달랐으며, 국어 학습 보조, 수학 학습 보조, 미술창작 활동 보조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수행 과제였던 심폐소생술 교육은 2023년 마지막에 진행했습니다.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관계 형성(라포 형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들과 관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늦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하기 한 달 전에 의학과 2학년 부원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 교육 자료를 제작했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육 당일에 아이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전 사전 평가를 진행했으며, 영상자료 시청 후 4명씩 조를 이루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았습니다. 교육 후에 추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아이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복지관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부원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많은 진심이 느껴졌고, 봉사 활동을 즐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 복지관 아이들의 인식조사를 비교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 지루해 하거나 답답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교육을 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의료나눔] 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벗' 신당 복지관 봉사"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인 2022년에도 저희 동아리는 신당 복지관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 봉사 횟수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봉사 시간을 위한 봉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봉사를 졸업이나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준 봉사 활동 기회를 계획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봉사 활동을 찾고 그 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저번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곳에서 봉사를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지관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정도 들면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반갑게 인사해 줄 때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기고, 프로젝트 마지막이 되어서는 다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원래 동아리의 경우 의학과 2학년까지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부원이 졸업할 때까지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 대상 응급의료 교육과 관련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의과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제작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약하고, 단어나 문장도 성인이 이해하는 것보다 쉬운 용어를 써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초반에 영상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교육에는 반감도 크고 집중력도 매우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봉사를 간 사람과 한, 두 번 봉사를 간 사람의 말은 아이들에게 있어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저번에 들은 적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 교육의 핵심과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학생 대상 의료 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봉사의 개념에 대해 다시 알았고,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충분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관계를 형성한 뒤에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의과대학 지도교수 이재호

[의료나눔] 손끝으로 전해진 생명(손·전·생)

활동 내용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산책보조, 어르신 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 보조, 혈압 체크 및 청소 보조, 응급구조, 안전관련 및 보건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방문 기관으로는 성보재활원, 대구육영학사, 성로원, 복음양로원, 범물동노인복지관, 화성양로원, 진명다움 등 총 7개의 기관이었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위생 관련 교육 및 건강체크, 응급 및 위기 상황의 처치 등 의료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문기관의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보조 및 행사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활동내용 중에는 응급대처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응급대처에 필요한 혈액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헌혈 기증 행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보건 및 의료 환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응급구조 교육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전 학생을 중심으로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에 동참한 43건의 헌혈증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하여 (사)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로 기증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전체 진행을 위한 소그룹 활동으로는 응급처치 및 안전 교육을 위한 사전 모임, 봉사기관 방문을 위한 팀별 사전 회의 등의 모임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구 지역 7개의 기관 중,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심 있는 곳을 스스로 정하고, 활동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대 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공 의료와 보건환경의 문제를 인식함으로 자발적인 자세로 봉사 정신을 다각도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성과

1. 정보 취약계층의 이해와 응급구조 및 예방 교육의 필요성 인식

장애와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응급상황 및 안전 대처 능력이 미숙한 대상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 적합한 위기 대처 및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2. 국민건강권의 사각지대 개선

정보 취약계층 및 국민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 응급상황 및 위기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 국민건강권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었다.

3.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의 함양

의과대학생들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을 이해함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응급구조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헌적인 역할에 동참할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K-DONUT 봉사활동으로 방문했던 복음양로원이라는 노인생활시설은 국공립 시설이기 때문에 무연고자이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고립되어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처럼 젊은 학생 봉사자들이 자주 방문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바이탈 체크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신다고 하시며 자주 방문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의 작은 봉사활동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의 관장님께선 의과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이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봉사활동온 학생들 덕분에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관장님의 말씀에 그동안 시험을 반복하며 지쳐있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공 공부에 열심히 임하여서 사회에 필요한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따듯한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환자에게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관장님께서 노인시설에 꼭 필요한 봉사자들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여러 기관들을 다니며 낮 시간 동안 돌봄시설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화목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일상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고, 대다수 연로하시다보니 응급상황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설 기관 관계자 분들께 위기 상황 및 응급대처법을 교육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학우들이 K-DONUT 봉사자로 활동하며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보였었습니다. 훗날 의료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번에 느꼈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쌓아온 전공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활동을 마칩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의과대학 지도교수 황일선

[의료나눔] 열린진료소

활동 내용

- 열린진료소는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와 약물을 처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안내드리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
- 복지관과 협의 하에 2주에 한 번, 토요일 점심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행함
- 의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열린진료소 부원으로 구성되며, 지도의사 한 분(본 동아리 출신 선배)와 함께 해당 주에 스케쥴이 되는 10 명 내외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주요 성과

- 열린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료를 전파하여 사회 봉사를 실현함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건강 지식을 함양
- 의료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함

활동 소감문

일년 간 의료 봉사 동아리인 열린 진료소를 맡아 이끌었습니다. 물론 진료를 맡아 봐주시는 선배님과 뒤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교수님의 지도와 함께였으나, 처음에는 진료소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걱정과 함께 올해 초에 처음으로 진료소를 맡아 전체적 진행을 총괄하게 되었을 때, 어색함과 긴장이 가득한 채 새로운 부원들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전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환하고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태도 아래 금새 긴장이 풀렸고 친근한 분위기 아래 의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진료소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은 때로 부원들의 선배가 되어 어떻게 찔러야 손가락 끝의 굳은살을 혈당침이 잘 파고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미소를 지으며 처음 봉사에 참여한 부원들도 익숙히 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학문을 배우는 동료로서 부원들도 큰 힘이 되어 모든 부원이 활동 중에 간단한 건강 상담부터 혈압/당 측정, 그리고 운동 권장까지 다양한 주변 상황에 맞게 어르신들께 적합한 행동을 권유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봉사 활동 이상으로, 인간대 인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의과대학생으로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더 드릴 수 있어 학업으로 열심히 쌓아 온 지식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봉사 활동들을 통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동아리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원과 함께 도움을 드리는 형태였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것은 오히려 부원이었고 활동시간이 끝나갈 때마다 나누는 행위에 대해 은은하게 차오르는 만족감과 주는 것에 대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장으로서 많은 도움 아래 일년 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순히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년 간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으며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여러 계층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따뜻한 인술을 펼치고자 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열린진료소라는 봉사동아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공중보건학전공 지도교수 박천만

계명건강드림 서포터즈

활동 내용

1. 교내 활동

1) 달서구 보건소, 대학보건센터와 연계-교내 절주 및 건강 캠페인(3회)
- 절주 관련 O, X 퀴즈 진행을 통해 절주에 대한 정보 제공
-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패치를 통해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 체성분 분석 검사 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심뇌혈관질환, 절주에 관련된 리플릿 배부

2) 교내 절주 캠페인(6회)
- 구바우어관, 백은관, 영암관에서 절주 리플릿과 캠페인 물품 배부를 통해 절주에 대해 홍보
- 절주 다짐 트리 만들기 체험 진행, 절주·금연 서약서 작성, 음주 위험 체질 검사 진행

3) 총동아리 연합 축제-절주 체험 부스 운영
- 절주 서약서를 작성 후 음주 대체 활동으로 에이드 만들기 체험을 진행
-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패치를 통해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고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 음주 관련 O, X 퀴즈 진행을 통해 음주 폐해에 대한 설명

4) 교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절주 캠페인
- 음주의 위험성, 절주의 필요성에 대한 보건교육 진행
- 음주 관련 O, X 퀴즈 진행을 통해 음주 폐해에 대한 설명
- 음주 대체 활동으로 에이드 만들기 체험
- 음주 위험 체질 검사를 진행하여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고 음주의 위험성을 설명

2. 교외 활동

1) 달서구 보건소 연계-대구 시민 대상 공원, 지하상가 및 지하철역 절주 캠페인(4회)
- 두류역 지하상가, 반월당, 월성공원, 와룡공원에서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절주 캠페인을 진행
- 절주 리플릿,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키트, 물티슈 등의 배부를 통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절주에 대해 홍보

2) 달서구 보건소 연계-지역 경로당 절주 교육
- 음주 관련 O, X 퀴즈 진행을 통해 음주 폐해에 대한 설명
-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패치를 통해 술에 대한 자신의 체질을 확인하고,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 절주 리플릿을 배부하여 음주로 인한 건강 폐해와 절주에 대한 설명

3) 달서구 보건소 연계-월광 달빛 나눔 걷기 부스 운영 및 건강 캠페인
-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바른 걷기와 함께 절주·금연 캠페인을 진행
- 절주 부스 운영을 통해 음주 고글 체험을 진행
-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함
- 절주 리플릿을 통해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 바르게 걷기에 대한 릴스 제작 후 SNS 게시

4) 대구·경북 대학 총동아리 연합전-절주 캠페인 부스 운영
-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패치를 통해 음주 체질과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검사 리플릿의 음주 습관 테스트도 함께 진행
- 음주 고글 체험을 통해 만취자의 시각을 경험하고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

5)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2회)
- 성서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제2작전사령부 군장병 대상 절주 캠페인
- AUDIT-K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 검사를 통한 알코올 사용 장애 여부 확인 및 기관 지원 연계
- 음주 고글 체험을 통해 4가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별 관찰과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을 체험하도록 함
- 절주 리플릿을 제공하여 절주 실천 수칙에 대한 설명

6) 지역사회 공공장소 모니터링 활동(2회)
- 대구시 내 편의점(무작위 6개점포 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공원 내 음주 및 금연 구역 표지판 유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3. 온라인 활동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전달(카드뉴스 89건, 영상자료 9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절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절주와 관련된 카드 뉴스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함

주요 성과

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교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3회의 건강 캠페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 9회의 교외 캠페인 활동,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카드 뉴스(89건), 영상자료(9건) 제작 후 게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과 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약 110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위해 연 1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건강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캠퍼스의 건강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공중보건학 전공자로서 지금까지 교실에서 학습한 전공지식과 관련 이론을 캠페인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적인 전문성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얻은 것도 주요 성과라고 생각한다.

활동 소감문

두 학기 동안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사업을 마무리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을 무사히 끝낸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달서구 보건소,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의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캠페인, 월성 주공 5단지 경로당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교내 인터내셔널 라운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절주 캠페인, 반월당역, 두류역, 월성공원, 와룡공원 등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절주 캠페인 등 전공융합혁신사업 의미 그대로 전공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이 성장과 배움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활동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내 외국인 대상 절주 캠페인은 기존 캠페인과는 달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월성 주공 5단지 경로당 교육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건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만큼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와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건소 담당자님의 고령자분들이 긴 시간 집중해서 교육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O, X 퀴즈, 음주 위험 체질 검사 등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배치해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상자별로 활동 순서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활동이었던 달서구 보건소와 대학보건진료센터 연계 교내 캠페인에서는 음주 위험 체질 검사를 할 수 있는 패치를 처음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 위험 체질 검사 활동이 간단하면서도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캠페인 참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전공융합혁신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이후의 활동들에도 적용하여 더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동을 진행할수록 팀워크, 소통,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매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듯이 전공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해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전공융합혁신사업을 통해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업을 담당해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 활동 중에 생기는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신 담당자님, 무엇보다도 서로 배려하며 함께 노력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KAC(Keimyung Adams College) 지도교수 서정수

KAC 세르버스 레단 (레단스쿨)

활동 내용

영어 및 인성교육(레단스쿨)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1차적으로 분반을 하고, 아이들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 인원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3반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별 레벨에 맞는 워크시트나 미디어 자료를 통해 영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어교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기념일을 하나씩 정해 해당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계기 교육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도서관의 날, 바다의 날, 철도의 날, 삼복(三伏), 핼러윈데이, 점자의 날, 소비자의 날' 등을 선정하여 계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성과

아이들은 멘토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알파벳부터 영어 단어까지 각자가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강조한 대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의를 두었더니 이전보다 멘토와 멘티 사이가 가장 좋은 한 해였습니다. 또, 1년동안 꾸준히 아이들을 생각하며 멘토링을 진행해서 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직접 올해 너무 감사했다고 내년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셔서 단원들 모두에게 레단스쿨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2023학년도 KAC 리더십 프로그램 <세르버스 레단>의 레단스쿨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0시30분까지 총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어 및 인성교육을 기본 목표로 하되, 올해는 계기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게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업을 준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멘티 아이들은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레단스쿨은 이미 몇 년전부터 진행되어 저희 레단이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이라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 2023학년도의 복지관 피드백이 지난 시간들보다 가장 좋았습니다.

이에 저희 레단은 지난 12월 6일 복지관 송년회에 초대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년동안 꾸준히 복지관에 방문하여 봉사를 하며 분명히 힘든 적도 있었고, 아이들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감사패를 받으니 그동안 저희가 해온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왔다는 생각에 단원 모두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관장님께서 내년도 잘 부탁한다고, 이게 모두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저희 레단은 2024학년도에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레단스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EUP 사업을 통해 수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기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4학년도에는 아이들에게 더나은 내용을 준비해 수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멘토링이 그저 멘티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2023학년도 활동을 통해 멘토링은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단순히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단스쿨이 단원 모두가 본인 스스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EUP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김혜경

청년 경찰 희망이음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내용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모여 진행한 '청년 경찰 희망이음 대학생 서포터즈' 로 다문화 및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대학교 발전 목표인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지식플랫폼'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확산에 일조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전자금융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홍보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현재 전자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피해자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행정학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 하고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지역대학의 청년들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현재 가속화 되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위협을 주는 전세, 월세 사기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현재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월세 사기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취약계층인 노년층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 7곳을 다니며 전세, 월세 사기 예방 강연을 했습니다.

활동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롤리폴리스팀은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0명의 학생들이 모인 팀입니다. 과거 2010년도 유행을 이끌었던 롤리폴리 노래에 영감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발전해 나가며 대중에게 스며들었던 롤리폴리 노래처럼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팀입니다.

저희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문제해결플랫폼,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프리하라 등 지역기관과 협업하여 현재 많은 문제가 되는 전세, 월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다문화가정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전세,월세의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하였습니다.

저희의 활동 목표는 부동산원과 금융감독원의 교육지식을 일반인은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들을 지역사회 사람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과 강연을 하여 추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역기관의 강연 이후 아동대상 수업을 나갈때는 캐릭터를 이용한 영상을 제작하여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수업 후에는 복습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보드게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어린이 친구들이 단어를 이해하고 복습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직접 참여하기 쉽도록 질문을 중심으로 PT자료를 구성하여 수업 후에는 여름에 필요한 부채를 제작하여 수업내용을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부채에 수업내용을 적어보며 수업 후에도 관련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 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 이번 전공융합 혁신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수업 후에는 서로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며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화법이나 말하기 역량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셔서 어려운 분야를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외활동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 강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나의 지식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경제금융학전공 지도교수 김윤민

청년참여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프로그램

활동 내용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년추진단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년추진단은 전자금융 및 부동산 사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3가지 팀으로 나누어졌고, 그 중 전공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전자금융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같이 전문 기관에서 진행한 전문 교육과 조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전 지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자료를 다른 조원들 앞에서 시연해 보고 상호 간에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여 향후 진행할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회차가 늘어갈수록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교육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을 보완하고 완성해 가면서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교내 사업과 연계된 활동이었으나, 교외의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다른 학과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전자사기에 대한 지식 함양을 하고,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같은 전자금융의 다른 조들과 소통하면서 전자금융 사기의 유형과 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통해 또래의 사람들이 아닌, 자신보다 훨씬 어리거나, 훨씬 연장자인 교육자들을 상대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험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핵심인 활동이었던 만큼 전달하는 내용이 받아들이는 교육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시연해 보면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많이 듣고 접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으리라 자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자들의 방식과 능력이 발전되고, 교묘해지는 것을 배우며 전자금융 사기 방식이 정말 다양해졌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피싱과 스미싱 등 가장 트렌드와 세상을 빠르게 알고 있는 나이라는 생각에는 상반되게 해당 전자사기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문외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만큼 사회 취약 계층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교육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고, 가장 연장자인 교육자는 노인기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소통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전지식의 정도도 다 달랐기에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양질의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의 질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교육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마음 맞는 학과 친구들이였지만, 활동의 대부분은 같은 전자금융 클래스의 새로운 사람들과 진행했습니다. 항상 마음 맞는 사람과 많은 활동과 과제를 해왔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 좋은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 관계 속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전자사기의 피해액과 규모, 심각성이 커지고, 범죄 방식 등이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이것을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도 항상 교육자분들에게 '앞에 내용은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예방책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관과 구성원들이 이러한 예방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심리학과 지도교수 정대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초기면담 및 행동 관찰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로 걱정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면담 및 행동 관찰을 통해 주 호소문제를 파악한 후, 전문 지도자와 함께 슈퍼비전이 이뤄짐 초기면담은 상담자와 보호자가 함께 아동의 호소 문제와 발달 시 특이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행동 관찰은 아동의 호소 문제가 관찰되는지, 혹은 어떤 행동적 특징을 가졌는지 등 파악하기 위해 이뤄짐

2. 개인 상담

슈퍼비전 이후에 어떻게 개입이 될지 사례 개념화 및 사례 회의를 한 후, 아동 개별로 맞춤화된 상담이 놀이치료 및 모래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됨 1회기에 50분씩 주 1회, 총 8회기 진행됨. 필요에 따라서 부모 면담과 심리검사를 병행하기도 함

3. 집단 상담

학기마다 1회기에 50분씩 주 1회, 총 5회기 정도 사회성 발달 및 정서발달을 주제로 아동 집단상담을 진행함. 매회기마다 리더와 코리더가 함께 의논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하고 진행하였음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마다 총 8회기 개인상담 3건, 초기면담 3건, 행동 관찰 3건이 진행되었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집단상담이 10건 진행되었음. 따라서 총 개인상담 43명 각 8회기 3건씩, 약 130건, 초기면담 및 행동 관찰 약 260건, 집단상담 5회기, 총 10건이 진행되었음

또한, 참여 인원 개개인마다 전문가를 통한 슈퍼비전이 진행되었으며, 슈퍼비전으로 인하여 습득한 전공지식 활용을 바로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공 관련 능력 및 상담 사례 개념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됨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심리검사(TCI, PAT, SCT 등)를 직접 시행해 보고 슈퍼비전을 받은 후 해석 상담을 해보면서 관련 지식 및 경험을 확인해 보고 연습하는 기회가 되었음

활동 소감문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실제 아동의 사례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서툴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활동 초반에 초기면담과 행동 관찰 과정에서 아동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 호소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초기면담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태와 특이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고, 행동관찰을 통해 실제 행동 패턴을 관찰하여 정확한 문제 도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의 개인 상담에서는 사례 개념화와 사례 회의를 통해 팀원들과 협력하여 아동 개별에 맞춘 상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놀이치료와 모래치료 등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과 소통하며, 개별 맞춤화된 상담은 아동의 성격과 기질에 맞춘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단상담에서는 다양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고,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친 담당 교수님과 전문가 선생님의 슈퍼비전은 전공 관련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전문 지도자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실제 상담에 대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피드백은 상담 계획 및 진행 방향에 큰 도움을 주었고, 팀원들과의 공동 논의는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다뤘던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하는 경험은 전공 관련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이론적 지식과 검사 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실습 활동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 함양과 동시에 상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 및 보호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고,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의 전공과 관련한 기술이 더욱 강화되었고, 향후 실무에서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심리학과 **지도교수** 최윤경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회복 안내서 및 심리지원 메뉴얼 개발

활동 내용

-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스크리닝 심리검사, 초기 개입을 포함한 <마음건강 안내서> 제작
- 범죄 피해자에게 회복 안내서를 소개할 때,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 및 교육 자료가 포함된 <마음건강 안내서-사용자 매뉴얼> 제작
- 계명대 심리학과 최윤경 교수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하수정 대표님과 김영애 대표님의 자문 반영

주요 성과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를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계신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사용
-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 이후 필요한 지원 체계 파악 및 정리
-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심리적 안정 기법 안내

활동 소감문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판 모니터링 진행 후 교수님과의 슈퍼비전 시간에 자주 나왔던 질문은 '이후 피해자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이었다. 범죄는 별것 없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삶을 흩트리고, 길고 고된 법적 절차를 버텨내어 가해자에게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자는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가야 했다. 그저 돌부리에 넘어져 다친 상처에도 약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악의를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사람의 회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책자를 만들며 내린 결론은 정말 모든 방면에서의 지원이었다. 신체적 상해를 위한 치료비 지원, 그동안 일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심 시킬 수 있는 CCTV 설치, 우울과 공포에 빠진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적 지원, 기나긴 법정 공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등등. 그리고 이번 EUP 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이후 언제든 편히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 범죄 피해 이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반응들,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좋은 기회로 더 좋은 접근성이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사람이 가진 힘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한다. 듣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일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한 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하며 피해자 분과 전화 중에 피해자분이 '다정하시네요. 위로가 돼요'라고 하신 적이 있다. 누군가의 악의로 넘어진 사람은 누군가의 선의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선의를 알아채는 것, 그 선의에 다시 기대보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힘은 피해 이후 생존하신 모든 생존자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범죄 피해자 분들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주시는 교수님과 책자 제작에 도움을 준 대학봉사단 선생님들, 자문을 해주신 하수정 대표님, 김영애 대표님, 피해자분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대구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신 EUP에 감사드립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경영대학 **지도교수** 김길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경영생활

활동 내용

■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대화하며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비교해 보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나라와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비교하였음

■ 경영학전공 관련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국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함

주요 성과

■ 외국인 유학생들이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한국의 실질적인 모습과 문화에 대해 알려주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각 전공 관련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주요 경영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알지 못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경영 전공 관련 수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

활동 소감문

평소 학교를 다니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외국인 유학생들과는 조별 과제를 같이 하는 것 말고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 과제를 할 때처럼 특정 목적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중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 잘 알지 못했던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얀마의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얀마의 유명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미얀마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내전 중인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에서 방학을 한 후 고향에 돌아갔을 때 겪는 어려움과 공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학생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아가는 진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한국 학생들은 성실히 대답해주었고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나라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전공 관련 수업을 들을 때 한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EUP)와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지만, 계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도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많은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식품가공학전공 **지도교수** 이승욱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 발효식품 함유 이색 건강 디저트

활동 내용

1학기 EUP 프로그램에서는 아몬드 플로랑탱 쿠키와 직접 발효한 또콩을 만들고 포장하여 포장 박스에 담아 50세트를 만들어 박스를 들고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분들께 직접만든 디저트를 나눔하는 활동을 하였다.

2학기 EUP 프로그램에서는 초코 머핀과 직접 발효한 또콩을 만들고 포장하여 포장 박스에 담아 40세트를 만들어 박스를 들고 직접 와룡성심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디저트를 나눔하는 활동을 하였다.

주요 성과

직접 또콩을 발효하고 아몬드 플로랑탱과 초코 머핀을 만들어 포장함으로써 식품가공학과 특성을 살릴 수 있었으며 전공을 살려 노인종합복지관과 아동센터에 직접 나눔하는 봉사를 진행함으로써 봉사에 대한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도 봉사를 즐겨 하겠다는 다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활동 소감문

이번에 참여한 EUP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아몬드 플로랑탱 쿠키와 초코 머핀과 또콩을 직접 만들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와룡성심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친밀함과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아몬드 플로랑탱 쿠키와 초코 머핀과 또콩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동아리 부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면서 효과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봉사의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와룡성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경험이 특히 의미 있었는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디저트를 보고 기뻐하는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아몬드 플로랑탱 쿠키와 초코머핀과 또콩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직접 만든 디저트를 통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달하는 경험은 나와 동아리 부원들 모두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아몬드 플로랑탱 쿠키와 초코 머핀과 또콩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배웠다. 팀워크, 인내, 책임감 등 다양한 가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양되었다. 이는 나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동아리 모든 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함께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한 시간은 큰 자랑으로 남을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자 생각하며 앞으로도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인문국제학대학 지도교수 정상희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내용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참여를 통해 저희 인문국제학대학 학생들은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일본어와 영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멘토로 참여한 우리 팀원들은 각자의 전공지식을 총동원하여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외국어 교육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주 다양한 학습자료와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학생들이 외국어를 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인문국제학대학 학생들이 주도하여 활동한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일본어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시키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이로써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우리 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전공융합혁신사업(EUP)에 참여하며 '지역 소외계층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은 나에게 큰 영감과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교육이라는 분야에서의 책임과 역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EUP에 참가한 인문국제학대학 학생들은 멘티의 필요성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소외계층 학생들과의 소통과 조사를 통해 학습 수준, 관심사, 언어적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보다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는, 멘토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은 다양한 학습자료와 활동을 기획하여 참가자들이 지루함 없이 외국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게임, 역할놀이, 문화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교육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로서의 역할은 나에게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 각각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노력한 것은 나에게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우리 팀의 노력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가 아닌,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교육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나의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나의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화학공학전공 지도교수 이열림

일상 속의 화학공학 기초 실험

활동 내용

상반기

4~5월 활동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계명대학교 근처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학생들을 들을 모집함
- 모집된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인 신당종합복지관의 초등학생 12명으로 실험 주제는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실험으로 선정함
- 세부 주제는 일반화학실험 과목 중 일상생활속에서 관찰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화학의 원리를 관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주기적 색 변화'와 '비누의 제조' 2가지를 선정함

6~7월 활동

- 선정된 두 개의 실험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 설명 및 실험 방법을 확립함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실험 방법과 안전 주의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준비하고, 실험 참여 조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

8월 활동

- 학생들의 실험복, 장갑과 간식(샌드위치 및 음료)을 준비하고 실험 시간과 순서를 결정함
- 실험 진행 전 학생들을 고려한 안전 방안 대책안을 숙지함
- 계획된 실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실험 교육을 진행함
- 상반기 프로그램 종료 후, 긍정적인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하며 하반기 프로그램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함

하반기

9월~10월 활동

- 상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하반기 활동을 위한 E UP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운영 방법, 자금사용 계획과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함
- 상반기 활동으로 구성한 실험 계획이 지역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실험으로 계획을 수립함

11월 활동

- 크리스마스 친환경 비누 만들기: 손씻기가 중요한 이유, 병원균 제거를 위한 손 씻기의 중요성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발표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로 함
- 눈사람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12월에 맞추어 눈사람 무드등을 만들며 눈이 내리는 원리, 물의 세 가지 상 변화에 관하여 발표 자료를 통해 설명 하기로 함
- 선정된 두 개의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 방법, 실험 물품, 실험 주의사항을 포함한 실험 계획을 수립함

12월 활동

- 프로그램 활동 장소 확보, 실험 준비물, 간식(빵, 음료)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실험 시간과 순서를 결정함
- 실험 진행 전 학생들을 고려한 안전 방안 대책안을 숙지함
- 계획된 실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실험 교육을 진행함

주요 성과

상반기 활동에서는 화학공학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화학공학전공 내에 있는 실험 장소를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되는 초자와 시약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이를 통해 아이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으며,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하반기 활동에서는 지역복지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친환경 비누 만들기와 눈사람 아크릴 무드등 제작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아이들과 함께 실제 사용 가능한 키트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긴말한 유대감을 형성하였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은 이번 활동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한 유대감은 대학의 사회 공헌 목표를 더욱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었음

EUP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활동에서는 지역복지관의 초등학생들에게 화학공학의 기초 실험 지식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실험 수업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주요하게 기여한 결과를 이루었음. EUP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성과들은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 더불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적인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및 경험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하였음

활동 소감문

신당종합복지관 소감문

- 아이들이 직접 실험복을 입고 과학 실험을 해서 흥미 있었으며, 과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비누 만들기 실험에서 가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조교분들께서 적절하게 상황을 대처해주었음
- 요오드 화학 반응으로 색깔이 변화하는게 신기하였음
- 조교분들께서 친절해서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었음

아쉬운 점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는 실험복이나 장갑의 크기가 맞았지만, 저학년 학생에게는 크기가 커서 맞지 않아 다소 아쉬웠음
- 비누를 제조하였지만,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비누를 만들어서 아쉬웠으며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 보고 싶음

계명대학교 화학공학전공 소감문

- 초등학생들에게 화학적 현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주기적 색 변화'와 '비누의 제조'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일상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화학적 현상을 다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실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음
  또한, 비누 제조 실험에서 만들어진 비누가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고 이를 통해, 학년별 편차에 대한 고민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음
-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학공학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뿌듯하였고,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느꼈음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지도교수 박주혁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인력 양성 교육

활동 내용

-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차전지의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현재 국내 기업의 세계적 입지와 전망 등을 설명하였으며 과학적 현상 위주로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하였음

- 이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에 대하여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였으며 양극 재 내부에 들어가는 전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 효율, 안정성, 수명 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였음

- 연구실 수준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HALF CELL을 설명하기 위해 COIN CELL 부품을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주요 성과

- 고등학생들이 이차전지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게 할 만큼의 내용을 통해 이차전지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차세대 에너지 소재에 관한 기본 지식을 깨우치게 함

- 고등학교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며 학생들의 차후 전공 선택 및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현대사회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위한 단계임을 인지시키고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킴

활동 소감문

인류 문명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나 화석 연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대 문명은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시작으로 해수면 상승과 같은 여파를 직면하고 있다. 앞선 이유로 현대인들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갈망해 왔으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는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선대 연구자들은 여러 연구를 거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정보 및 교훈을 남겨왔다. 이에 신소재공학전공 박주혁 교수를 필두로 하여 여러 학부생들은 선대가 이어온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심했고 EU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목적으로 삼아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들과 교류하고 이차전지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로 구성하여 대구송현여자고등학교,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대구경원고등학교 세 고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이차전지의 기본 지식, 국내 기업의 세계적 입지와 전망 등과 같은 현황을 알렸다.

이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양극재를 위주로 양극재 내부에 사용되는 전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순환적 자원 사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고등학생들의 반응은 사뭇 진지하게 강의를 받아들이며 이차전지에 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차후 고등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감히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여파를 직면한 현대 문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차전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해야 하며 후대에게 중요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신소재공학전공 박주혁 교수 및 학부생들은 차후 각자가 가진 생각을 토대로 이차전지 발전 및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다분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EUP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도 우리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부서** 입학사정관팀 **지도교수** 서원상

진로멘토단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동 내용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전공 설명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내 명소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는 등 진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함

대상 중·고등학교

서동중학교 / 혜화여자고등학교 / 석적고등학교 / 창녕대성고등학교 / 금오중학교 / 부산중학교 / 이서고등학교

주요 성과

중·고교생들에게 '계명대학교'에 대해 좀 더 알릴 수 있었고, 진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음

활동 소감문

계명대학교 진로멘토단 드리미로 활동하면서 여러 중·고등학생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에도 자신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우리 '계명대학교'의 다양한 학과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선택할 학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꿈에 더 가까운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중·고교생들과 같이 활동을 하며 그들의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흥미가 있을 것이며 기억에 남는 정보가 될 것 인지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고 연구해 보았다. 공학계열 부문은 활동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했던 터라 수월했지만, 인문·어문 활동의 경우 학우들의 흥미를 돋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힘들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스피드 퀴즈 게임, 영어로 보드게임 만들어 보기, 영어로 동화책 만들어 보기 등 간단하면서도 즐겁게 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계명대학 교 진로멘토단 드리미끼리도 똘똘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활동을 하기 전 더욱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싶어 계명대학교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떤 정보가 더 도움이 될까 고민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다.

이로써 계명대학교에 대해 나 또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계명대학교의 명소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학과 생활을 하면서 타 단과대학의 학과는 잘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이 많을 터인데 여러 학과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학과들이 어떠한 학문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수학전공 지도교수 고은경

지역사회 수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 내용

- 교육이라는 특성상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없으므로 팀을 나누고 스페어 인원을 둬서 평상시에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게 진행
-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이라는 조건에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주로 하되 국어, 영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 교육지원
-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흥미를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
-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자연스레 수학에 관심을 가짐
- 점차 학생들과 친해지며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고 운동을 하는 등 친목을 다짐
- 학생들이 점차 EUP 팀원들을 믿고 잘 따라오며 성적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침
- 향후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봉사를 가고 무급으로 개인과외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예정

주요 성과

-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수학에 흥미를 붙여 점차 기대되는 인재로 발전 기대
-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학습에 대해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짐
- 학교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두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게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줌
- 현·전직 학원강사, 수학 대학원 희망자 등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여 학생들의 학교 성적향상에 큰 영향을 미침
-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전문적인 강의로 도움을 주기로 함

활동 소감문

먼저 교육 봉사 활동 기회를 만들어 주신 EUP본부와 고은경 교수님, 잘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교육 봉사 활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다국적 학생들을 가르치며 알게 된 각국의 문화들을 통해 윤리적 봉사정신과 국제적 문화감각을 겸비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희 경북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국적 아이들이라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 나라의 기본적인 언어를 공부하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수학에 대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 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 팀원 중 몇몇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경북지역사회에 다듬지 않은 원석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여러 지원 정책을 찾아 아이들 부모님께 전달해 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육 봉사를 하며 교육봉사자들의 의무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각각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상황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교육봉사를 하더라도 매일 같이 있어 줄 수도 없으므로 근본적 문제인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고, 저와 저희 팀원들은 보다 더 나은 선생님, 봉사자, 그리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저희의 조그마한 관심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얻은 즐거움, 보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과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경북지역사회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 나비효과처럼 경북지역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 EUP본부와 고은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체육학전공 지도교수 최원석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축구 실기 지도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축구 기본기, 기초 기술, 응용 기술, 경기 전략 이해 및 수행, 경기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개별 및 집단지도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흥미 유도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축구, 발볼링, 순발력 게임, 어려운 술래잡기, 빙고 게임 등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준별 수업과 개인 지도 등 수준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성과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공과의 친밀도 향상, 수준별 지도 덕분에 축구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실기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경쟁 활동을 통해 동료와 협력, 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갔으며, 부족한 친구를 챙겨주는 빈도가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내 계명대학교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활동 소감문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 대다수가 선생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다. 평소에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해볼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수준과 성별이 무차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참여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였다.

상반기 수업 1회차에는 미리 대비를 하고 갔음에도 다들 당황하여 수업을 우리가 계획한 만큼 진행하지 못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두 함께 모여 앞으로의 수업계획을 다시 계획하고 리허설도 진행하였다.

또한 여학우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손축구 등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준비하였다. 이렇게 수업지도안을 직접 작성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활동과 다르게 참여 아동을 우리가 직접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한 대상을 충분히 구하기 위해 홍보 방법을 구상하였다. 인스타 및 블로그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겪으며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된 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을 다 모집한 후 우리는 상반기 활동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기술적 측면에 좀 더 집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흥미 유발이 아닌 기술적인 수업을 진행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도력 향상이 요구되었다.

참여학생 중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프로그램 이후 따로 기술적인 부분을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 줌으로써 해트트릭 부원 간의 우정도 더 끈끈해진 것 같다.

참여 아동의 실력이 매 회차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함께 경기를 뛰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였고, 놀리기도 하였다. 그 순간만큼은 선생님이 아닌 같은 학생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것 같다. 하반기 수업 마지막 날 아쉬워하는 아동들을 보며 우리도 많이 아쉬워했고 속상했다.

상반기, 하반기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나니 지도력 부분이나, 홍보, 프로그램 구상, 축구교실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등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고 너무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었다고 말해주는 아동들 덕분에 많은 보람을 느낀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수업 회차로 꼭 참여하고 싶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체육학전공 지도교수 천우광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활동 내용

테니스부 기간 : 2023.07.14. ~ 11.25 / 장소 : 계명대 테니스장
양 궁 부 기간 : 2023.08.06. ~ 12.07 / 장소 : 계명대 양궁장 , 성화중 양궁장
야 구 부 기간 : 2023.10.13. ~ 12.02 / 장소 : 계명대 현풍 야구장

① 매 회차마다 3~4시간 진행
② 목표를 크게 3개로 잡았고, 이 3개의 목표를 매 회차 진행하면서 달성함

주요 성과

① 유·청소년들이 실력 향상을 자기가 스스로 느낌
② 유·청소년 기본기 다지는 데 큰 도움을 줌
③ 유·청소년들이 회차가 거듭할수록 예의범절이 길러짐
④ 유·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고 재미를 느낌
⑤ 유·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찾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됨

활동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3년도 EUP 전공융합혁신사업에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 학생을 맡게 된 계명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사회체육학과 전공 야구부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 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정말 재밌고 뜻깊고 보람찬, 뿌듯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인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저희 계명대학교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만 해왔던 저에게 이런 대표학생이란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서 정말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행해 주시는 진행자분과 원활한 소통, 친절함 등 양식이 너무 잘 맞춰져 있고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부담감과 힘들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바뀌게 되면서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제 유·청소년 시기도 되돌아보고 깨달으면서 이 유·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기술, 정보, 생각, 자신감 등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형들 운동하는 것을 보면 멋있고 부럽고 그랬었는데 다가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기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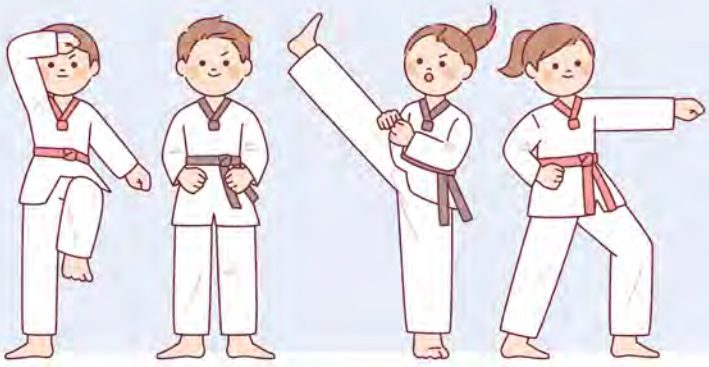
저는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고 더 진행이 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형들을 멋있어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들 역시 유·청소년 스포츠 인재들에게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힘쓰고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 교육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태권도학과 지도교수 김종수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장 소 계명대학교 태권도센터, 계명대학교 체육관

전공실기 지도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및 태권도시범단 학생들이 지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 실기 지도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태권도 기본동작, 시범 기술, 시범 응용 기술, 격파, 호신술, 태권체조 등 시범 기술에 대한 개별 및 집단지도

전공실기 지도 프로그램

·14:00~15:00(1시간) :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태권도 시범에 필요한 기초체력 훈련, 태권도 기본기 훈련
·15:00~16:00(1시간) : 태권도 시범 기술훈련(체공 도약, 수직 회전, 수평 회전), 태권도 시범 응용 기술 훈련(복합 응용 기술), 마무리 정리 운동

주요 성과

1. 2023년 5월 20일 활동으로 인해 계명대학교 시범단원들이 시범 실기 지도를 하며 지도자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
2. 2023년 6월 17일 활동으로 달서구청 태권도시범단과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 전수와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원들도 다 같이 즐기며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친밀해졌다.
3. 2023년 7월 2일 플라잉 태권도시범단원들과 함께 훈련하고 플라잉 학생들의 밝은 에너지와 더불어 시범기술도 공유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2023년 8월 24일 퍼포먼스 디자인 도장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주며 실제 대회 경험과 갖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하면서 다 같이 태권도 실기 능력도 향상하고 성장 할 수 있게 되었다.
5. 2023년 10월 14일 BLD 태권도시범단 아이들만의 밝은 에너지와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고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원들도 그 에너지를 받들어 좋은 운동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과의 친밀도도 형성하였다.
6. 2023년 10월 28일 감사랑 태권도장 학생들과 함께 서로 배울 점도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7. 2023년 11월 18일 하이어 태권도장 단원들과 훈련을 하면서 친밀감 형성, 노하우 공유 등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원들 또한 좋은 경험이 생겼다.
8. 2023년 12월 10일 국가대표 영웅 태권도장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계명대학교 태권도 시범 단원 들도 옛 시절의 나 자신을 회상해 봄과 동시에 아이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동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 되었다.

활동 소감문

이번 저희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의 인적 전문성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구시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을 통하여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태권도 시범 분야 유·청소년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전공융합혁신사업(EUP)는 프로그램 목표이념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 태권도시범단을 활발히 활성 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에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저희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원들이 청소년 시범단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기 지도를 하면서 향후 태권도 지도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 활동으로 좋은 경험과 알찬 기억으로 남게 되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범단원들도 태권도학과를 목표로 진학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전문성과 시설 인프라도 미리 체험할 수 있었고 정확한 운동체계와 대학교 시범단의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어 계명대학교 태권도 학과에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던 활동이기도 합니다.

태권도장의 지도자 관장님들 또한, 자신의 수련생들을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애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 "우리 아이들도 커서 멋진 시범단원 형, 누나들이 될 수 있을까?" 등 호감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 자신 또한 태권도시범단의 주장을 대표 학생으로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EUP)은 프로그램 목표에 정말 알맞게 진행이 된 것 같으며, 청소년 시범단원 학생들과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 단원들도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완만히 긍정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 실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대와 자신 사이에 친밀도를 형성하게되는 경험, 서로 노하우와 알찼던 경험들을 공유 하고 기술 발차기 또한 피드백 해주는 경험과 직접 실기 지도를 하는 경험 등 대표 학생으로서 계명대학교 태권도 시범 단원들의 미래에 좋은 양분을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융합혁신사업(EUP)처럼 나머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향후의 계명대학교 시범단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발 뻗고 노력하여 단원들에게 즐겁고 행복하며 보람찬 대학 생활과 태권도시범단 동아리 활동을 느껴주고 싶습니다.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국어국문학전공 **지도교수** 장요한

대구·경북 지역어 창작 독려 사업 (지역 사투리 UCC 경연대회)

활동 내용

대구·경북의 지역어 사용을 통한 지역 문화 및 특색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데 대학과 지역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구·경북 사투리를 이용한 UCC 사투리 짤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을 통해 사라져 가는 지역어의 가치를 보전하고 재조명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 사투리의 사용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생생한 지역어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달성군 화원 5일장 장터에 직접 방문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투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후, 관찰 내용을 기사로 작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및 애정을 독려하는 사투리 UCC 특집신문 기사 작성 및 편집 활동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매일신문에 특집 기사 1편을 실을 수 있었다.

주요 성과

1. 대구·경북 방언에 대한 높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대구·경북 방언의 사용이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달성군 화원 장터로 직접 다녀와 봄에 따라 텍스트만으로 사투리 표현을 접했을 때와는 다른 차원으로 방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2. 대구·경북 방언 및 우리 전통의 가치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다니면서 방언에 대한 높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이라는 다정함 역시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이 주는 분위기와 함께 방언만이 살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가치를 소중히 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3. 기사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구·경북 방언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사투리 UCC 특집 기사를 써봄으로써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전달과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국어국문이라는 전공의 특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활동 소감문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기사문을 작성해 볼 기회는 거의 없었기에 기사문 쓰기를 기획하고 글을 직접 작성하며 수많은 수정 끝에 신문에 실릴 한 편의 기사를 완성해나갔던 모든 과정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시장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 뷰도 진행해 보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머리가 아닌 몸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 살아있는 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저희 팀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소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전공 공부를 통해서 수도 없이 지역어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며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지역어, 사투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람들 간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 지역 시장 현장 속에 있어서 여전히 수많은 우리 지역 사람들 간에 주고 받아지는 우리의 말, 우리의 사투리가 얼마나 값지고 매력이 넘치는 언어인 지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누구보다 앞 장서서 현실에서 위축되고 사라져 가는 이들의 언어, 혹은 우리의 언어가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역시 여러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번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대구·경북의 지역어 사용을 통한 지역 문화 및 특색을 보존 및 활성화하고 이러한 우리 지역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및 애정을 독려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대구·경북의 사투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고 말고를 떠나 저희 스스로부터가 지역어에 대한 소중함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사 한 편을 신문에 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사를 읽게 된 사람들이 사투리 UCC에, 그리고 대구·경북의 사투리에 작은 관심을 보이길 기대하며 활동을 했던 것처럼, 빠르게 많은 것이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오늘날에 이러한 우리들의 다짐과 노력이 누군가의 작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어쩌면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희 팀원들에게 있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견문 역시 넓힐 수 있었던 여러모로 정말 귀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미술대학 **지도교수** 조배문

대구시교육청 연계 특수학생 미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 내용

대구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① 지역의 문화 소외 학생에 대한 미술교육 기회 및 체험 확대
② 미술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특수학생들의 교육 경험 제공

운영대상 대구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선발된 3개교 대상 (초, 중, 고)
참여학교 : 대구와룡초등학교, 다사중학교, 다사고등학교
참여대상 : 총 32명 (지적장애 27명, 시각지적중복장애 1명, 자폐성장애 1명, 시각장애 1명, 발달지체 2명)

운영기간 2023년 3월 23일 ~ 6월 22일

주요 성과

가. 전문적 미술교육을 통해 특수학생의 발달 촉진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2차적 심리적 손상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었음

나. 미술을 통해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키워 자신을 스스로를 치유하는 경험을 학습함

다. 미술대학 재학생들이 특수학생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접목해 봄

라. 참여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계명대학교 미술술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사료됨

마.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미술 지식 플랫폼을 형성함

05 예시작품

04 전동 탈 계작하기

모두 함께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활동 내용

초급 동화책

도형의 생김새를 주제로 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요'는 주제를 선정하거나 스토리를 구상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정하거나 긴 문장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문장으로 줄이는 것이 초반에는 어려웠으나,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동화책을 바라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권의 동화책 중 일본의 전래동화인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두건'과 한국의 전래동화인 '은혜 갚은 까치'의 내용을 합쳐서 스토리를 구상한 '속마음이 들리는 요술 수건'의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구상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요'를 제작할 때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와 한국의 전래동화를 합쳐서 하나의 동화책으로 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 속 문화를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전래동화와 합쳤을 때 잘 융합될 수 있을까?'였다. '속마음이 들리는 요술 수건'과 '은혜 갚은 까치'는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다른 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부분은 더 돋보이도록 하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융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팀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두 전래동화를 융합시켜 동화책을 제작할 수 있었다.

중급 동화책

책 '별사과 나무'는 베트남 전래동화 '별사과 나무 이야기' 내용을 토대로 제작했다.

베트남 전래동화 '별사과 나무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와 유사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국어가 조금 서툰 초급 다문화 학생에게도 한국에서 접했던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자연스레 상기시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별사과 나무 이야기'를 선택하여 제작했다. 이야기에 구체적인 지역명을 추가 했고 삽화에 베트남 전통 의상 및 가옥을 그려 베트남의 특징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책 '악기들의 모험'은 창작 동화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하여 스토리를 구성했다.

나와 다른 모습,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과 다양성을 존중해 화합하는 과정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동화로 제작했다. 창작 동화였기에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팀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다수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탄탄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내용 구성 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베트남 전통 악기의 선정이었다.

주요 성과

동화책 읽기에서 이해 교육이 가능하며 학습 자료를 통해 쓰기와 말하기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서 통합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제작하면서 학과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동화책을 제작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초급 동화책

동화책을 제작하기 전, 처음에는 다문화 관련 동화책을 제작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스스로 다문화에 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도 있었고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동화책에 드러났을 때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팀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동화책을 제작하는 다른 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제와 스토리를 수정하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동화책을 제작할 수 있었다.

다문화 동화책을 제작하면서 다문화에 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방법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회를 통해 제작한 다문화 동화책이 많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중급 동화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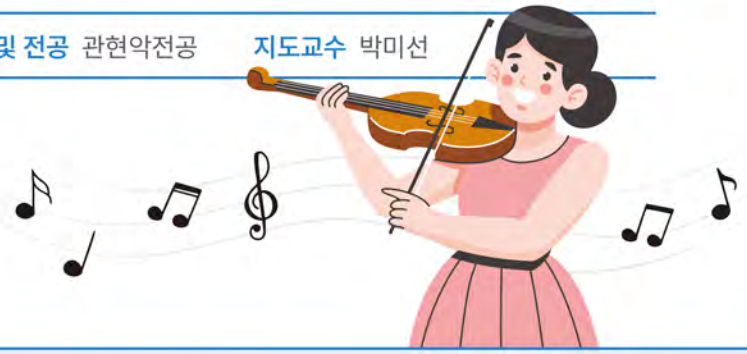
동화책 전반에 베트남의 문화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게 구성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동화책을 보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작 목적을 두었다.

팀원 모두 베트남 전통 악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던 정보가 많지 않았고 자료 조사시에도 자료가 많지 않아 악기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작해야 하는 동화였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작하는 동안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토의하는 과정이 저희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문화 학생들의 시선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두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모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화합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관현악전공 **지도교수** 박미선

계명 엘 시스테마



활동 내용

바이올린을 잡는 기초 자세, 활을 잡고 긋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계이름, 박자를 익히는 기초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각각의 수준에 맞는 동요(나비야, 학교가는 길, 작은별, 징글벨,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등)를 연습하고 배움으로써 흥미를 유발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함

4~5명의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수업을 하였고 주 1회 수업으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업하였고 12월 13일 연주회를 통해 이때까지 배운 것을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관객 앞에서 발표함

주요 성과

아이들의 바이올린과 예술에 대한 흥미가 이전보다 매우 향상되었고 선생님들과 악기와 활을 잡는 방법과 같은 기초 부터 시작하여 많은 음악적 지식을 얻고 매주 꾸준히 배움으로써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뛰어난 실력 발전을 이루었음

바이올린 연습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무대에 섬으로써 성취감을 얻었으며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을 얻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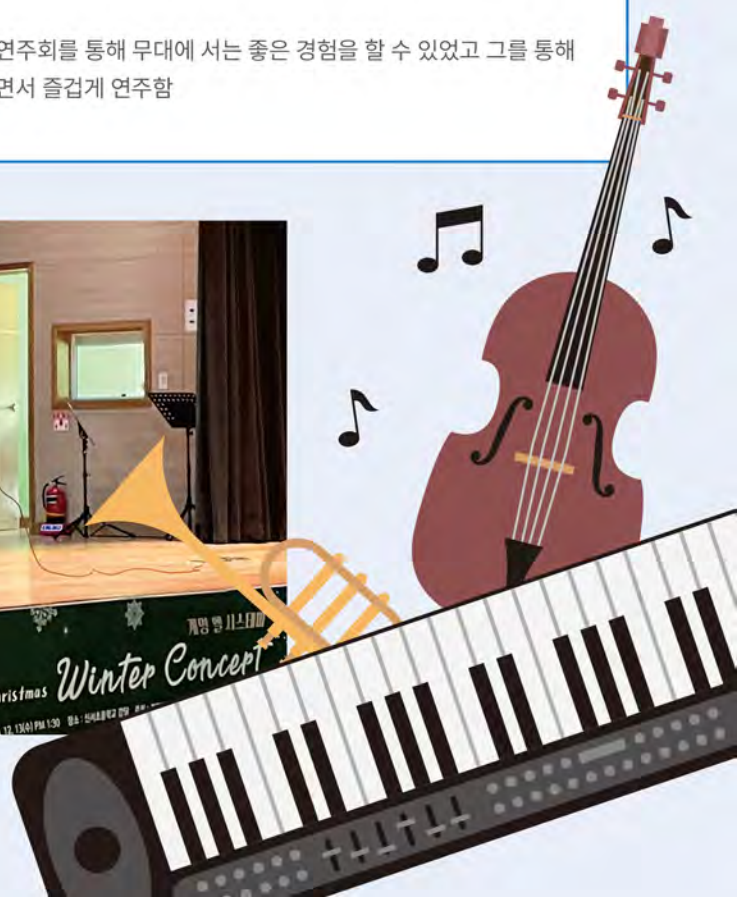
활동 소감문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친밀도가 높았고 한명 한명이 빠른 실력 향상을 이루고 예술에 대한 흥미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매주 바이올린 수업으로 꾸준한 연습과 계이름, 악보 보는 방법, 바이올린을 잡고 활을 잡고 긋는 방법 등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고 많은 기본적인 음악적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아이들 각각 개별적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곡들을 익히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었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연주회를 기획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무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매주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내를 배움

연주회가 끝나고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연주회를 통해 무대에 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무대에서의 즐거움을 알고 발전된 모습을 내보이면서 즐겁게 연주함



계명대학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함께해요! 공원축제!

활동 내용

일상에 지친 대구 시민들을 위해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소속 문화·예술 동아리들에게 협조를 구해 들샘공원과 장미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동아리들은 사전에 미리 선정한 곡들로 들샘공원에서 버스킹을 진행하여 대구 시민들과 문화로 소통하였다.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킹 구경을 하기 위해 공원 내 벤치가 있는 장소로 선정하였고, 공연시간 동안 시민들은 편하게 벤치에 앉아서 공연 시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들샘공원에서의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공연 기회가 적었던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대구 시민들 상대로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평소 시민들에게 산책 장소의 인식이 강했던 들샘공원과 장미공원은 이번 버스킹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장소로 이미지가 변화되어 평소에는 시내나 중심지로 가야 볼 수 있었던 버스킹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다.

주요 성과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소속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들샘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해 공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버스킹 공연을 한 각각의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 본인의 음악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무대가 되어 소중한 대학 생활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은 콘서트장이 아닌 접근성이 좋은 인근 공원을 통해 누구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이자, 각 동아리에서 준비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청취하면서 음악적 교양을 쌓을 수 있어 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 모두에게 양면의 성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버스킹과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들샘공원 같은 공간을 마련해주며, 대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소통의 장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의 문화·예술분야 동아리들과 함께 버스킹을 진행 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활기와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쉽게 접하는 버스킹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형성했으며, 버스킹 문화를 처음 보는 시민들에게도 크게 어렵지 않도록 다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지만, 대중적인 노래도 나오면서 진행하니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보였다.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각 동아리들의 장점을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동아리들의 음악적 장르나 취향을 알 수 있었으며, 동아리들의 정체성도 알 수 있었다. 이 버스킹을 통해서 문화의 성찰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장점이었고, 단순했던 들샘공원은 산책 공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의 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의 공연이 적었던 학생들을 위해 공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여러 동아리들이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 모습이 나타났다.

이후에 있던 장미공원에서는 많은 동아리들이 들샘공원에서 있었던 부족한 리허설 시간을 미리 예측해 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 버스킹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번의 들샘공원보다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되었던 점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만족한다.

장미공원에서는 미리 확실한 준비가 되어있다 보니 마음 편하게 진행하면서 큰 실수가 없었다. 다만 공연 당시 곡들을 시민들의 연령층에 맞게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았다. 아쉽게도 연령층의 곡으로 맞추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어서 이 점을 다음에 공연이 있을 예정일 경우 보완한다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동아리들이 준비한 2번의 버스킹을 준비해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을 점점 알아가고 다음번의 공연에서 수정을 고쳐나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들샘공원과 장미공원의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면서 끝낼 수 있어 뿌듯하면서 다음에는 이번보다 더욱 분발하여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여 마무리하고 싶다.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 **참여학과 및 전공** 공예디자인전공 **지도교수** 최유담

문화소외계층 도자예술체험 프로그램

활동 내용

-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도자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재외국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부모-아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수업 당 대략 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적으면 15명에서 많게는 2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
- 초심자가 다루기 쉬운 백자토 혹은 산백토를 사용하여 처음 도예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재미있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흙으로 트레이(접시)의 형태를 제작 후 색화장토를 사용해 각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거나 적음
-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대를 접하며 더 넓은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보고 도예체험을 지도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트레이 제작에는 도예기법 중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팬드페인팅 기법을 이용하여 붓으로 화장토를 발라주었음
- 수업 이후에 팀원들과 함께 보강 작업도 하고 소성에 대한 이야기나 포장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보았음
- 완성된 기물은 개별포장 후 센터에 직접 가져다 드리면서 프로젝트 마무리함

주요 성과

- 수업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의 친목 도모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음
- 수업 준비 과정이 미래에 전공을 살려 공방을 차리거나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익혀두면 좋은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
- 도자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예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이번 기회로 인해 작업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음
- 완성된 도자기를 기다리는 체험 대상자분들에게 완성된 도자기를 가져다줌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어 좋았음

활동 소감문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소 복잡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팀원들의 도움과 대상자분들의 기다림으로 인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학기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 수업을 진행하며 대상자분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넓힐 수 있었고 자유로운 수업의 형태가 더해져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았다.

2학기 프로젝트에서는 부모-아이를 대상으로 하여 수업한 회차가 많았는데 아이들의 호기심 많은 특성들이 흙과 만나 이상한 것 같다가도 특이한 것 같은 트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흙으로 그릇을 만들며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도 인상 깊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어떤 흙이 수업에 적절할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여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는 전공을 살려 미래에 공방을 차리거나 공방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활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동기들이나 선배분들을 마주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으로 인해 동기 혹은 선후배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좋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원금을 관리하고 팀원들에게 안내사항을 공지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는데 물론 학업과 병행해서 하기에는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체험 받을 대상자들과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는 팀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주문을 하거나 지원금을 배부하였던 것 같다.

재료 구매 과정에서는 대구도재와 클레이어, 대원도재를 이용하였는데 대구도재는 우리 공예과 수업 혹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주문을 하는 곳이다. 처음에는 흙이나 간단한 도구만 주문하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재료들을 찾아보면서 도재에 어떤 것이 파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

수업 전에 팀원들과 재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았다. 일정 크기로 판을 밀고 인당 하나씩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일도 밀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판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 물레 역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특히 먼지가 많은 책상도 수업 직전에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방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도예 수업을 준비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팀원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테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으며 1년을

알차게 보낼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기르고 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미래에도 더 다양한 프로젝트나 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해준 교수님과 부서 직원들께 감사하다.

지역환경개선 | **참여학과 및 전공** 건축공학전공 **지도교수** 안성진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활동 내용

-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의 주거취약계층 선정
- 취약 시설의 물리적/인문적 환경 분석 및 프로젝트 범위 설정
-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지원기관과의 정보 교환
- 주거환경의 노후화 정도와 문제점 파악
- 주거개선 범위와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방안 도출
- 자녀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 디자인 도출 및 적용
-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 관리
- 장판 교체, 타일 줄눈 작업, 창호 누기, 세면기 개보수, 벽지 등 안전, 위생을 위한 시설 개선
- 일부 가구 폐기 및 대체 가구 제작
- 지난 프로젝트 주택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 보수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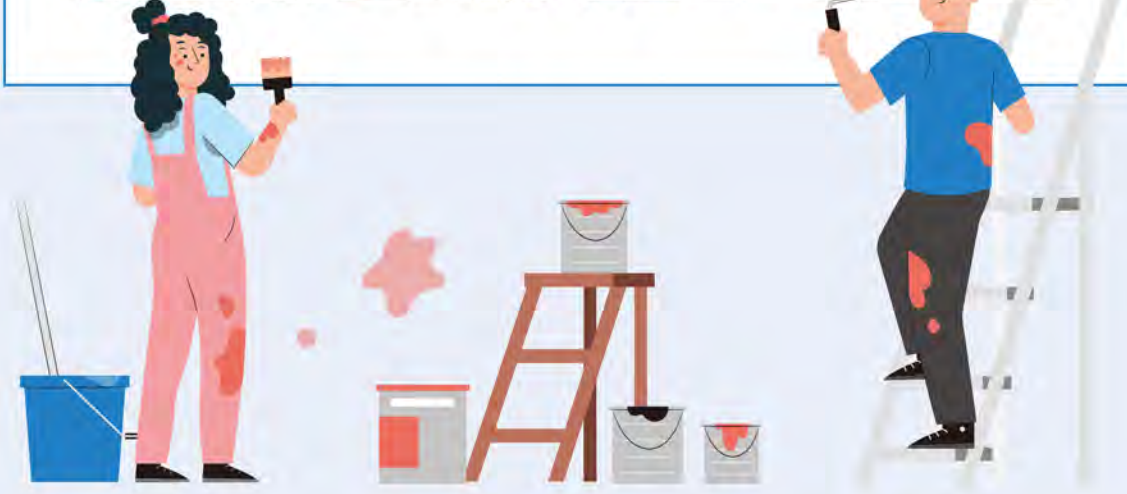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의한,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삶 영위 도모
- 소년소녀가장의 생활 및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 원동력
- 학생들의 전공 관련 지식 적용 기회 및 계명의 사랑, 봉사 의식 고취
- 작년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봉사체계의 확립 및 지속적 활동 기대

활동 소감문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감동과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택의 수리 및 보수, 청소, 환경 정리 등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일상적인 것들도 큰 도전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일을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더욱 깊게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지원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주거개선 활동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환경개선 | 참여학과 및 전공 생태조경학전공 지도교수 박진욱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존 만들기

활동 내용

1. EUP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할지 팀원들끼리 토의하였고,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신청하였음
2. 6월 26일 청도 노는엄마들 팀과 진행할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누고 청도초등학교~경상북도 교육청 청도 도서관까지의 보행 문제점을 사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음
3. 7월 8일 노는엄마들 팀과 유아차, 어린이 자전거를 끌어보면서 불편함을 체크한 후 청도농업 기술센터에서 문제점과 느낀 점을 공유하는 1차 리빙랩을 진행했음
4. 7월 21일 2차 리빙랩 전 대상지 사전조사를 통해 현황파악 했음
5. 7월 29일 기존 계획이었던 실외 보행 편의성 실험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본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우는 2차 리빙랩을 진행했음
6. 8월 19일 청도 고수구길을 더 좋은 보행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구역을 정해 보행 공간 개선 방안을 고민함
7. 11월 3일 온누리국악예술단에서 고수구길 개선 방안을 시각화한 것과 함께한 내용과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하여 공유했음
8.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구역 방안을 소책자로 제작하고 직접 전달함

주요 성과

1.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구역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EUP 프로그램을 청도군 노는엄마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
2. 청도초교 ~ 경북 교육청 청도 도서관까지의 보행 문제점을 사전 조사하는 시간에 불법주차, 횡단보도 물량, 신호등 미작동, 보도블록 불량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함
3.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아차와 어린이 자전거를 직접 끌어보며 사전에 찾은 문제점이 실제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고, 실험을 통해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
4. 2차 리빙랩 전 새로운 사전 조사를 통해 새로운 대상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5. 무더운 날씨로 인해 유아차를 직접 끌어보며 실험은 못 했지만, 2차 리빙랩을 통해 사전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토의를 통해 결정함
6. 청도 고수구길을 3 구역으로 나누어 보행공간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의견들을 종합하고 추려내어 청도 고수구길의 보행 공간을 개선 방안을 확정시킴
7. 5에서 확정된 개선 방안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최종공유회를 열었고, 10분가량의 발표를 통해 최종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침
8. 앞의 모든 내용들을 「'교통약자'를 위한 친보행자 생활서비스 구역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만들어 냄

활동 소감문

강대진
평소에 거리를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아차, 휠체어 등 보행에 있어 아주 조금의 불편 요소가 추가되어도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항상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청도 주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더 나은 청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우수진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 직접 지역주민들과 소통, 교류를 하며 다양한 점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빙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마무리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과정 하나하나가 새롭고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실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으며, 더운 날씨로 인해 실험을 여러번 진행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리빙랩이 진행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습 니다. 저희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을 진행하였지만 더 나아가 저희가 한 리빙랩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청도의 거리기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경
마지막 브리핑 자리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지역사회의 주민분들과 교류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다 같이 마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지영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 학교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특히 청도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
이번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과정이 새로우면서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신혜
처음 시작을 하며 우리가 청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워크샵과 리빙랩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기획부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함께 실험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그래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같이하게 된다면 이번보다 더 다양한 제안으로, 더 높은 퀄리티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허준빈
기존에 길을 걸을 때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아닌 유아차를 밀고 가거나 노약자들이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부분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바뀌어 언젠가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서영
이번 EUP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도중에 들어오게 되어서 다른 활동 없이 최종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나서 소책자를 만들면서 다양한 활동과 답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의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번 선배님들의 활동을 본받고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싶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지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며 평소에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한 곳은 많았으며 혼자 걷는 것이 아닌 유아차와 걸을 때는 새로운 문제점을 찾을 정도로 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동엽
처음엔 저의 고향인 청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저 신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부모님들과 유아들의 불편함과 학생들의 진지함이 느껴져 저도 점점 진지한 마음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많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동네를 프로젝트를 통하여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경험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김주연
저는 프로젝트 후반에 참여하게 되어서 최종 발표를 통해 전체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개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언
이번 프로젝트에 마지막 PT 때만 참여하게 되었는데 발표 시간을 통해 이때 동안 한 과정과 결과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집중했다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환경개선 | 참여학과 및 전공 생태조경학전공 지도교수 정해준

정원으로 생기 넘치는 우리 동네

활동 내용

1. 달성군 하빈면 평화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만드는 정원

달성군 논공산업단지의 쇠퇴로 인하여 주변 주거 및 지역 경관이 저하되었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원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평화마을이라고도 불리며, 과거 6.25 피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다.
PMZ센터(하빈 평화기념 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주민과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 학생들의 협업으로 진행하였고, 주민과 학생 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정원 식재 안을 개선시킴으로써 정원을 조성하였다. 기존 유휴지였던 부지를 정원으로 바꾸면서 인근 경관 개선 및 주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2.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과 협력하여 만드는 정원

애망장애영아원은 수성구 파동에 위치하고, 장애 영아 재활사업과 중증장애인요양사업을 함께하는 시설이다.
해당 영아원 내 유휴지가 많고, 위험한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경관적, 기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전 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요양원측과 학생들이 협업하여 진행하였고 영아들이 직접 조성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식물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주요 성과

대부분 이론 중심으로 교육받아 실습경험이 부족했다.
평화마을과 애망장애영아원에 정원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시 도면, 식재 발주 등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식물에 대한 강의가 부족하였던 단점을 정원 식재를 통해 식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시에 식재를 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

평화마을 및 애망장애영아원에 정원 식재를 함으로써 주변 경관 향상 및 인근 시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여 학교 및 해당 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한 두 개의 정원 조성 프로젝트는 이론 중심의 강의들과 달리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달성군 하빈면 평화마을에서의 정원 조성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한 정원이라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
주민들과 협업을 하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산업단지의 쇠퇴로 인해 손상된 지역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가지 않는 평화마을이라는 동네에 관해서도 알게 되고, PMZ축제 간 다육이를 받고 행복해하는 어린이들과 시민분들을 보는 것이 뿌듯했다. 정원 조성 간 PMZ센터와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원의 디자인과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험이 풍부했다. 또한,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과의 협력으로 이뤄진 정원 조성은 일반 시민이 아닌 장애 영아들에게 조경학이라는 전공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애망장애영아원의 유휴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영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면서 동시에 정원에서의 작업을 통해 식물 식재에 관한 지식과 직접 식물을 만져서 느끼게 되는 질감, 향기 등이 와닿았다.

평소 학교에서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론 중심의 강의 위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함께 수렴하는 작업들,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기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 등의 단계, 마지막으로 식재의 경험과 정원 조성 후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성취감이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환경개선 | **참여학과 및 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지도교수** 석재혁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 내용

박곡리 현장답사
도안 구상을 위한 마을 주민 및 이장님 인터뷰

도안 1차 디자인 회의
도안 1차 제작 및 수정

도안 2차 수정
도안 완성

벽 닦기
흰색 바탕작업·건조

건조
흰색 바탕 재작업·건조

스케치

컬러 페인트
컬러 페인트 작업

디테일
디테일 마카 작업

완성
뒷정리

주요 성과

벽화 프로젝트로 인해 다양한 성향의 학우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관계를 조성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역동성 집단적 책임감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선후배 간의 우호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어 쓸쓸한 분위기의 외벽을 박곡리의 지형에 뛰노는 아이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넣음으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특산물인 부추의 홍보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활동 소감문

도시의 소음과 서둘러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예술을 창작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깨끗한 공기는 창작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창의성이 샘솟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나에게 큰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낡은 외벽에 벽화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들과의 소통이 예술을 통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협업의 중요성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스타일의 참가자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최선을 다해 협업했습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는 훌륭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화 그리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예민성이 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경험하면서, 예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이 경험은 나에게 큰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술을 통한 소통의 경험과 지역사회와의 교감은 더욱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한, 협업과 창의성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결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놓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내가 더 큰 세계를 이해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사회와 환경 문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곡리의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는 나에게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고,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희망과 소통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나는 미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 U P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